지역 소식통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정읍경제 소생의 희망 불씨, 지역화폐 유통 중간점검과 코로나 19 종식 이후 회복기 대비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화폐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다소나마 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재난기본소득 등 정책발행분이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측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이복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기계 현장 순회 교육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농업기계 현장 순회 교육을 4월 28일부터 시작한다.

농업기계 현장 순회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힘든 농가를 위주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현장 교육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15개 읍면의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계 순회 교육은 경운기, 소형 굴삭기, 관리기, 예취기 등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술교육과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배양해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공격적 투자유치

동우팜투테이블 성공사례 발판 '기업하기 좋은도시' 홍보

농식품 전문 산단으로 기업 20개 · 일자리 2000여개 목표

고창군이 일반산단에 알짜기업 유치 성공을 기회 삼아 공격적 투자유치에 나선다. 군은 그간 마음졸이며 일반산단 정상화를 염원했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동우팜투테이블과 고창일반산업단지(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265-1번지 일원)에 15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일반산단 유치권 해소 이후 첫 산단의 기업 투자인 동시에 유기상호의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관련 1호 식품기업 유치다.

고창군은 수개월전부터 지역내 식품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업체와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한 뒤 예상되는 여러 문제(악취, 수질 등)를 가정해 전략을 세웠다. 현재 운영중인 계열사 공장 관계자는 물론, 해당 지역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가졌다.

특히 고수면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고수면 고창일반산업단지 민간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업체는 물론, 선진적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을 방문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에 업체도 신설되는 고창공장에 최첨단 악취저감 친환경 시설, 지하화된 폐수처리시설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군은 향후 650명의 고용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기업유치 성공사례를 통해 앞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를 농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군은 일반산단에 20개 기업 정도를 유치해 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제1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은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어 신선한 원재료 조달이 쉽다. 또 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 타 시·군에선 쉽게 시도할 수 없는 특작작물이 재배되면서 '특별한 맛'을 선보이려는 식품기업들의 안정적인 테스트베드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에 군 단위로는 드물게 고속도로 IC가 3곳(선운산, 고창, 남고창)이나 있어 유통이 편리하고, 대도시 소비처(광주, 전주 등)도 근처에 있어 식품산업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인과 근로자, 지역주민을 위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가 100억원 투입해 내년도 준공 목표로 체육관, 작은 도서관, 작은 목욕탕, 일자리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축산업 경쟁력 높이기 '올인'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현장 실증시험 협약체결

정읍시는 2020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축산현장 실증시험 선정과제에 2개 농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신기술 실용화 촉진과 확산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7일 국립축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현장 실증시험은 돼지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투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술과 드론을 활용한 조생종벼와 IRG(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작부체계 조사료 생산성 향상 기술 등 2개 과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분야의 선도적 기술개발과 신기술 적용을 통한 축산분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축산현장 실증시험은 돼지의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기술 투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술과 드론을 활용한 조생종벼와 IRG 작부체계 조사료 생산성 향상 기술사업이다.

돼지의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기술 투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술은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와 각종 질병 발생 증가로 인한 돼지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단백질 사료 급여와 비테인 첨가를 통한 도체특성 효율을 개선해 고온기 비육돈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양 기술을 실증한다.

또, 드론을 활용한 조생종벼와 IRG 작부체계 조사료 생산성 향상 기술사업은 벼 품종과 IRG 생산 작부체계 구축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바탕으로한 기호성이 높은 조사료 IRG 재배면적 확대 및 드론을 이용한 IRG 입모중 파종으로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산현장 실증시험 협약으로 지역 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축산 신기술을 보다 빠르게 도입해 축산업을 선도하는 정읍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국세 · 지방세 한곳에서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시 국세와 함께 동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됐다.

고창군은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위한 독자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독자신고센터는 고창군청 제2청사(상하수도사업소 1층 회의실·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4-12)이며,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당초 6월1일까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는 꼭 6월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며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7일 부안군청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부안군 · 정읍세무서, 국 · 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7일 부안군청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5일 정읍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민원실 운영을 준비했다.

이날 개소식은 권익현 부안군수, 정학관 정읍세무서장,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 유관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부안군청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읍세무서 직원 1명과 부안군청 직원 1명이 함께 근무한다.

통합민원실은 사업자 신청 및 정정은 물론 휴폐업신고, 국세증명 발급, 등록사항 열람 등 국세민원과 지방세 제증명 및 지방소득세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원스톱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정읍세무서와 협의해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구절초 꽃축제' 행사 준비 돌입

9월 26일부터 16일간… 내달 6일까지 판매장 운영자 모집

정읍시가 대한민국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정읍 구절초 꽃축제' 올해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작년 제14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에 이어 올해 제15회 구절초 꽃축제는 향기, 치유, 친수(親水)를 키워드로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시에 따르면 '제15회 구절초 꽃축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16일 동안 개최할 예정이다.

구절초 개화기 직전의 추석 연휴를 축제 기간에 포함해 정읍을 찾는 출향인과 관광객들에게 한층 깊은 가을풍경을 제공하고 장기간의 축제로 축제 운영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한다.

관련해, 시는 올해 축제에 대한 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본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내달 6일까지 축제 판매장 운영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구절초상품홍보판매장 ▲음식 장터 ▲농특산물먹거리관매장 ▲푸드트럭 등 4개 분야 총 56개의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읍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생산·가공하는 구절초 제품이나 농특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축제에서 망경대 경관을 가로지르는 106m 길이의 출렁다리와 코레우리, 산국, 아스타를 심은 향기정원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